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과 순교일기의 비교 연구

—〈성년광익〉과 〈기해일기〉를 중심으로—

김정경*

〈차 례〉

1. 〈성년광익〉과 〈기해일기〉
2. 〈성년광익〉과 기적의 서사
3. 〈기해일기〉와 인내의 서사
4. 의무에서 의지로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서학의 도입으로 인물의 생애를 이해하고 기록하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기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듣거나 읽었던 한글본 성인 전기 〈성년광익〉과 기해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수집·기록한 순교자 전기 〈기해일기〉를 비교 검토했다. 권력에 저항하여 순교하는 신도들의 이야기라는 공통적인 맥락과 줄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서양의 성인전과 조선의 순교자전 사이에 유의미한 변별점이 있다면, 그것이 조선 후기 사회 혹은 개인의 독특한 자기 이해 방식을 말해줄 수 있으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두 텍스트를 비교해본 결과 〈성년광익〉은 천주의 의지와 기적의 드러남을 핵심으로 하며, 〈기해일기〉는 신도 개인의 인내와 의지를 강조하여 공동체가 지향하는 모범적인 개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성년광익〉과 〈기해일기〉의 이러한 차이를 예수의 삶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설명했는데, ‘기적’의 이야기인 〈성년광익〉에 실린 성인의 삶은 신의 아들로 선택되어 신의 현존을 증명하는 예수의 삶에 초점을 맞춘 텍스트라면, ‘인내’의 이야기인 〈기해일기〉는 신의 아들로 나아가는 의지적인 주체로서의 예수의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유비관계에 있는 이들의 생을 기록한 텍스트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기적의 이야기를 인내의 이야기로 읽는 것, 즉 <성년광익>의 주인공이 수동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인데 반해, <기해일기>의 주인공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성취하는 것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이 ‘의무’에서 ‘의지’로 변화하는 것과 관계된다고 보았다.

□ 성년전, 순교자전, 성년광익, 기해일기, 기적

1. <성년광익>과 <기해일기>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서학의 도입으로 인물의 생애를 이해하고 기록하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기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듣거나 읽었던 한글본 성인 전기 <성년광익>¹⁾과 기해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수집·기록한 순교자 전기 <기해일기>²⁾를 비교 검토해

-
- 1) <성년광익>은 1년 365일 동안 매일 그날 선종한 성인과 성녀의 전기를 수록한 책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판본은 1738년에 간행된 드 마이야(J. M. de Mailla, 1669-1748) 신부의 한문본과 저자 및 간행시기 미상의 한문본·한글본이다. 이 판본들이 어떤 책을 번역하고 참조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드 마이야 신부의 <성년광익>은 프랑스 출신 예수회 신부 크르와세(J. Croiset, 1656-1738)의 <연중 매일의 성인들의 전기>를 번역한 것이거나 이 책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드 마이야 신부가 저술한 것이라고 한다. 저자와 간행시기를 알 수 없는 <성년광익>은 드 마이야본의 축약본으로 보기도 하는데,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드 마이야본을 토대로 했지만,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작성한 성인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방상근, 『《성년광익》의 서지 연구』, 『聖年廣益』,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6~14쪽; 김윤성, 『초기 한국 가톨릭 성인 전기의 서지: 한문 서학서의 전래와 번역』, 『교회와 역사』 302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7~8쪽;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 연구』, 『정신문화연구』 40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224~225쪽.
- 2) 기해년(1839) 초에 박해가 시작되자, 당시 제2대 조선교구장으로서 조선에서 활동하

보고자 한다. 특히 같은 세례명을 가진 <성년광익>의 성인과 <기해일기>의 순교자³⁾의 삶이 기술되는 방식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조선의 신자들에게 성인전과 순교자전은 삶의 모델 역할을 했으며⁴⁾, 특히 이들은 자신과 세례명이 같은 성인들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⁵⁾. 당시 신자들의 세례명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⁶⁾는 연구 결과와 사호(邪號)란 사학을 하는 자가 본받고 싶고, 자기와 유사한 자의 호를 취한 것⁷⁾이라는 당대의 인식 등에 비추어볼 때 19세기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읽었던 성인전과 조선 순교자들의 생애를 기록한 <기해일기>를 비교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턴주 강싱 후” 백여 년 또는 천여 년 즈음에 치명한 성인들에 관

고 있었던 앙베르(Imbert) 주교가 자신이 잡혀갈 것을 예상하고 믿음만한 신자들에게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하도록 명하면서 집필되기 시작했다. 정하상, 현경련, 이경천, 최영수, 현석문, 최 베드로, 이재의 등이 자료의 수집과 기록에 참여했다. 1841년부터 1845년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진, 『한국 천주교 순교자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250쪽.

- 3) <기해일기>에 따르면 기해박해 때 참수된 순교자가 54명, 옥사나 장사 또는 병사한 신자수가 60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선교사 3명, 남성 24명, 여성 43명이 시성되어 성인품에 올랐다. 방상근, 최선희, 양인성, 『한국천주교회사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48쪽.
- 4) “광주 고을에 살았던 심 발바라라는 젊은 동정녀가 사형을 당한 것도 4월 초였다. 성인들의 생애에서 보았던 위대한 모범에 감동하여 그는 결혼을 단념하고 하느님께 자기의 동정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성인들의 전기를 읽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형리들에게 보여준 그들의 너그러움에 대하여 자주 말을 하고 그들을 따라 순교하려는 원을 드러냈다.”(문영인 비비아나 이야기),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상, 안응렬·최우석 역주, 한국교회사 연구소, 1980, 471~472쪽, 504쪽.
- 5) “그는 자기 후보 성녀를 특별히 공경하며 같은 열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일으키기에 힘썼다. “나도 아가다 성녀처럼 순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자주 말하였는데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윤점해 아가다 이야기) 위의 책, 511쪽.
- 6) 방상근, 『18세기 말 조선 천주교회의 발전과 세례명』, 『교회사연구』 34, 한국교회사 연구소, 2010, 85쪽.
- 7) 조광 역주, 『(역주)사학정의』,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4, 344쪽.

한 18세기 서양의 기록과 19세기 조선 서학 신도들의 순교자전 사이에는 시간적·공간적으로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의 신도들은 성인전을 읽으며 자기 삶의 목표를 세웠으며, 따르고자 하는 성인들의 이름을 자신의 세례명으로 삼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했다. 또한 <성년광익>에 실린 <기해일기> 순교자들의 세례명 성인들은 대부분 박해 시기 옥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로써 <기해일기> 순교자들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 <기해일기>의 순교자들은 성인전에 실린 성인의 이름을 자신의 세례명으로 삼고, 그들 삶의 기록을 읽으며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기해일기>에는 성인전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에 저항하여 목숨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인 조선 천주교 신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처럼 텍스트 내적·외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지닌 <성년광익>과 <기해일기> 가운데 특히 같은 세례명을 가진 성인들의 생애 기록을 비교하여,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개인의 삶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규명해보려 한다. 만약 2~3세기 또는 11~14세기 성인들의 삶과 19세기 조선 순교자들의 삶 그리고 17~18세기 서양의 성인전에 나타난 성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19세기 조선의 순교자전에 나타난 순교자의 삶에 대한 이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19세기 조선의 서학 신도들이 성인의 삶을 자기화하는 방법을 말해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이 둘 간의 차이점을 토대로 조선의 신도들이 성인전을 읽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여 자기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성년광익>과 기적의 서사

<성년광익>과 <기해일기>에는 남성의 경우 13개, 여성의 경우 11개의 동일한 세례명이 실려있다. <기해일기>에 기록된 총 89명의 순교자 가운데 8명을 제외한 81명의 세례명이 <성년광익>에 실린 성인들의 것이므로, 연구 대상을 동일한 세례명을 가진 이들의 전기로 한정하여도 각각의 서술 내용과 서술 방식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들 성인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논문 말미의 <표>에서 <성년광익>과 <기해일기>에 실린 성인들을 같은 세례명을 가진 이들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성년광익>에 실린 성인전은 크게 박해로 순교한 성인들의 이야기와 수양과 극기 그리고 교화를 모범적으로 행한 성인들의 이야기로 나뉜다. <성년광익>에는 이 둘을 특별히 구분하는 지표는 없으며 예수 강생 후부터 400여 년까지의 성인과, 예수 강생 후 1000~1500여 년 사이의 성인의 전기가 순서와 관계없이 한데 실려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전자의 성인들이 대체로 박해로 인해 순교한 이들이다.⁸⁾ 이처럼 <기해일기>와 마찬가지로 <성년광익>에도 최초로 그 이름을 가진 성인과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러 성인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기해일기>에 가장 많이 보이는 세례명 ‘베드로’는(6회) <성년광익>에 모두 12번 등장하고, 이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만 3번에 걸쳐 나올 뿐(2월 22일, 6월 29일, 8월 1일) 나머지 베드로 성인은 모두 동일인이 아니다. 물론 <성년광익>에 실린 여러 성인전의 구조가 대체로 유사하듯이 ‘베드로’의 이야기

8) 로마 제국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자신이 기독교 신자였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재위306~337년)는 죽을 때까지 제국의 기독교회를 추진한다. 로마제국은 380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 도키 겐지 외 지음, 오근영 역, 『성서 문학과 영웅 서사시』, 웅진 지식하우스, 2009, 44쪽, 52~53쪽 참조

들 또한 각각의 베드로의 삶이 천여 년이나 떨어져 있다 해도 비교적 동일한 이야기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인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①인물 소개-②수양과 극기-③시련과 극복 ④교화-⑤치명·승천-⑥사후 이적’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시련과 극복’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줄거리는 남성 성인과 여성 성인의 경우 모두에 공통되는데, 먼저 남성 성인전의 구조를 <기해일기>와 <성년광익>에 가장 여러 번 언급된 “성 베드로”⁹⁾의 전기를 예로 들어 자세히 살펴보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드로 성인의 이야기는 크게 박해로 목숨을 잃은 베드로 성인의 이야기와 열심히 수양, 권면에 힘쓰다 세상을 마친 베드로 성인의 이야기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이야기는 2월 22일, 6월 29일, 8월 1일(여기까지는 동일인), 4월 29일의 이야기이며, 후자는 1월 9일, 2월 23일, 5월 19일, 6월 2일, 10월 19일, 10월 23일, 12월 4일의 베드로 성인의 이야기인데, 본 장에서는 성 베드로 사도의 전기와 4월 29일의 ‘성 베드로 치명’ 이야기를 자세히 검토해보겠다. 먼저 아래의 내용은 베드로 사도에 관한 세 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십이일 성베드로 종도 안디오가좌위 성 나사로 현슈

- ① 인물 소개 : 예수께서 승천 후에 성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어, 그가 성스러운 기적을 행하고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이들을 깨우쳤다.¹⁰⁾

9) 성 베드로 치명, 『성년광익』 4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235~242쪽.

10) “오쥬예수 승턴헌신 후에 성베드로 종도 | 위에 거햐샤 모든 종도의 웃듬이 되샤 성교를 그음아시더니 예수 승턴헌신 후 십일에 성신이 강림햐샤 종도의 믿음에 출판햐샤 만흔 괴이헌 은혜를 주시니 능히 성적을 행하고 능히 이국말을 하실시 이날에 성베드로 | 강론햐야 곁으샤터 십즈가에 못박히신 예수는 춤 던쥬 | 시오 춤 구세쥬 |

- ③ 시련과 극복 ④교화 : 이후 시련 속에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전교를 계속 했다.¹¹⁾
 ⑤ 치명·승천 : 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¹²⁾

이십구일 성베드로 종도

- ① 인물 소개 : 성베드로는 고기잡는 사람 요왕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성인의 형제에게 고기대신 사람을 낚으면 백배의 값을 받게 될 것이라 하자 즉시 세속을 버리고 예수를 좇았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께서 장차 너의 돌 위에 교리의 기반을 세우고 하늘문의 열쇠를 맡기겠다고 하시며 특별히 지어준 것이다.¹³⁾

라 흐시니 듯는자|가 놀나고 붓그려 통회치 아닛는 자| 업는지라 이날에 령세하고 교에 든 자| 삼천인이오 이후는 날노 더하고 들노 성하야 므츄내 수만여 인에 니르고 성교| 비로소 광양하니 성베드루| 여루사름과 모든 고을에 게서 전교하시다가”, 『성년광익』 1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331~332쪽.

- 11) “두히 후에 안디오가에 가사 좌를 덩하야 칠년을 거허실시 맞으신바 고로움과 권화 흐신바 빅성을 이기여 헤지 못홀너라 텨쥬 공경하는 사름을 그리스당이라 닐크름이 이 싸호로조차 비로소니 대개 예수 총교사름이고 교와 모든 이교의 사름과 다름을 분별홀이러라 후에 로마에 가사 교화황의 좌를 덩하시니 로마는 총왕의 도성이라 성베드루| 여기서 이십오년을 거하시니 네로브터 이제 니르히 교종이 이십오년을 거하신 이 업스디 성 베드루는 대개 텨쥬| 특별이 총이흐사 써 종도의 옷듬이 되심을 나타내심이더라 좌는 비록 로마에 세우시나 흥상 로마에 거하지 아니샤 만히 여루사름과 다른 나라회 전교하시고”, 위의 책, 331~332쪽.
- 12) “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시니 룩편이십구일에 즈세히 뵈니라 성회에 서 이 첨례를 직힘은 교종의 소임을 존경홀이니 대개 이 거룩한 좌는 보던하를 다스려 은퓌를 베프느니 교종은 보던하쥬교로 더브러 하고 쥬교는 각각 속한 바 탁덕으로 더브러 하고 탁덕은 각각 속한 바 교우로 더브러 하야 피즌| 서로 니이여 간단홀이 업스니 함하야 흐 성이 공회되고 쏘 혼몸이 되는고로 교중으로 흐여곰 그 은혜를 비받하야 그 몸의 머리를 낮지 말게 홀이나라”, 위의 책, 331~332쪽.
- 13) “성베드로는 이 성문종도의 옷듬이오 만세교종의 머리나 유더아국 벗 사이다 고을의 고기잡는 사름 요왕의 아들이라 형 안더리 닐으디 예수는 곳 텨쥬| 시라 홀을 듯고 흐가지로 가 뵈옵고 이후에 혹 바다그회셔도 맞나며 혹 호슈그회셔도 맞나 썰로 쥬의 혼계를 듯고 괴이한 능을 보앗도니 명을 받아 고기를 잡으며 고기비에 그득하더라 흐로는 예수| 성인의 형테를 명하야 곶으샤디 고기낙는 업을 버리고 나를조차

- ④ 교화 : 성인의 처모가 병이 들어 성인이 예수께 청하니 즉시 나왔다. 예수가 여러 은혜와 기적을 성인에게 베풀었으며, 성인 또한 병든 이들을 금세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교리를 크게 성하게 했다.¹⁴⁾

사람을 낫으면 장리의 반드시 빅빅의 갑슬 맞을 거시오 또 턴상의 상싱하는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 두 사람이 즉시 세속을 하직하고 조츠시더라 베드루의 본 일흠은 시든이라 오쥬 일흠을 궂쳐 서파스이라 하샤 나딘 말노 번역하면 베드루니 반석의 아름다운 근기라 뜻을 표호하니라 예수 일즉 모든 종도를 향하야 날으샤디 너희 등이 날노써 뒤라하노는 성인이 디답하야 곁으샤디 너는 이에 그리스도니 턴쥬의 친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곁으샤디 이는 턴쥬부 목시하신재라 내 장쥬 네 돌 우희 성교근기를 세우고 네게 턴문열쇠를 맞기리라 하시므로 특별히 일흠을 궂쳐 표호시니라”, 『성년광익』 2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1035~1043쪽.

- 14) “째에 성인의 안해는 임의 죽고 처모 오히려 잇서 병드러 누어 날지 못거늘 성인이 예수의 가 구하시기를 청하니 낫기를 명하시매 즉시 나온나라 모든 문도중에 쥬의 훈계의 불지 못하야 해여져 가는자 잇시대 성인은 맛기를 가장 김히하샤 일즉 곁으샤디 내 장쥬 어디로 가리오 오직 우리 쥬의 턴상 말슴 듯기를 즐겨 슬기도 아니코 게어르도 아넛노라 하시더라 모든 종도 바다를 건너다가 바람을 만나 빅 거의 업질너니 성인이 예수의 소리를 드르시고 그 바다 흰줄을 니즈시고 거러나가 마주시다가 쥬류의셔 쥬곰 의심을 두시니 형세 장쥬 췌질지라 예수 친히 잇그러 건지시고 바람과 물결이 평하니라 다블산에서 성인이 예수의 몸뱃치 히긋고 옷식 회기 눈긋하심을 보시며 다른 두 종도로 더브러 다 혼미하야 업터지시고 예수 슈난 전날 저녁의 탁족례를 행하실시 문져 성인의게 맞츠시니 곁이 스양하다가 발을 씻기이고 씻기를 못츠매 췌 성테 성혈의 은혜를 옷뚝으로 덩히시고 췌에 성인이 의연이 치명으로써 죽임하시니 예수 곁으샤디 오늘 밤 돌 울기 두 번전에 네 반드시 세 번 나를 빅반하리라 하시더니 괴약이 니러러 과연 그 말슴과 궂치 하시고 예수 눈을 두루히 도라보시니 성인이 링연이 췌드라 스스로 징계하시고 후에 미양 밤마다 들이 올면 압히게 울어 뒤웃츠샤 종신도록 이긋치 하야 눈물을 흘너 흠을 일우시고 예수 부활하신 후에 그 훈계하시는 말슴을 밧아 총은을 넘음이 비상하시고 예수 승턴하신 후 성신 강림 본날의 성인이 삼천여인을 권화하시고 일노조차 날노 더하고 들노 성하야 오라지 아나 수만의 넘더라 당밧기 훈발저는 사람이 인공을 청하거늘 성인이 곁으샤디 내 직물노 네게 베풀거시 업스니 잇는 바 턴쥬의 은혜로써 네게 베프노라 하시고 예수 성호를 부르시니 저는 재 즉시 니러서 흥보하기를 여상히 하니 일시에 소문이 전하야 길히 그득하고 원근의 피이여 므르 귀막힌 이와 쇼경과 위병든 이와 나창잇는 이와 부마흔 자 다 길궂회 기드리다가 성인 나가실 재 그림즈를 지내면 낫지 아님이 업스니 성인이 곁을 트 날너 곁으샤디 이는 오직 우리 쥬 예수 성호의 능이라 날노 더브러 간섭흠이 업다 하시니 이러므로 성교 크게 흥하느니라 고교

- ③ 시련과 극복 : 헤로도가 성인을 잡아 가두었으나 천신이 옥을 열고 내보냈다. 성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래된 규율들을 고쳤다. 로마의 한 이단이 있어 요술을 부리니, 성인이 예수께 구하여 마귀가 힘을 잃고 죽었다. 국왕이 성인에게 화가나 주변인들이 피하라고 했으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는 예수의 말씀이 계시인 줄을 깨닫고 피하지 않고 치명한다.¹⁵⁾

투기하거늘 성인이 모든 문도를 권면하야 글으샤되 맛당이 정원으로 옥을 밧아 영화
 를 삼으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고을이 성교도리의 북지 못함을 드르시고 친히 그 디
 방에 가샤 정미흔 도리를 나타내시고 또 유디아로 조차 이웃나라회 두로 노르샤 곳
 곳이 병을 낫게 하고 마귀를 모르시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경계하시니 갓가온 뒤와
 먼디를 의논치 말고 다 악한 풍속을 곳치더라 니다부의 혼 사름이 안중반이 된지 팔
 년의 성인이 부로서니 즉시 니러나고 요베부 혼 큰 덕의 과부ㅣ 병드러 죽거늘 성인
 이 부활케 하시고 혼 히 후에 도로 여루사름의 도라오샤 모든 중도로 더브러 모혀
 의논하야 공변되이 십이신경을 덩하시고 디방을 난화 가실시 성인은 본도 국과 같나
 시아 국과 비디니아국과 아시아 등 모든 나라회 가시고 오년 후에 여러 번 아니으가
 의 니르샤 교종거흘 위를 세우시고 칠년을 거하샤 밧으신 바 고로움과 감화하신 바
 빅성을 이끄여 해지 못홀너라 교우를 그리스당이라 닐크롬이 이세브터 비롯고 또 이
 제 니르히 이 디방이 크게 성교의 공이 잇심을 닐코느니라”, 위의 책, 1035~1043쪽.

- 15) “째에 유디아국왕 헤로도ㅣ 악당의 말을 듣고 중도 성 야고버를 죽이매 또 성인이
 성교회 옷들이 되심을 듣고 잡아 가도니 천신이 옥을 열고 내여 보내는지라 로마 도
 성에 이단이 성함을 드르시고 벗을 닛글고 나아가실시 길히셔 만흔 사름이 밧어 쫓
 고 도성에 니르시매 모든이 복음을 밧거늘 이에 어질고 능흔 이를 글히여 직조되로
 쓰샤 경영하시고 비포하심이 탁영이 가히 보암죽하니 이러므로 가히 크고 오랜 근괴
 가 다 로마의 잇다 닐코더라 유디아국이 본디 그 교를 조차 활손함과 희심으로 제현
 하는 등 규구ㅣ 잇서 능히 변하야 곳칠 줄을 아지 못하고 피츠ㅣ 의논하야 결단치
 못하더니 마침 성인이 로마의 난을 피하야 여루사름의 오샤 공변되이 의논하야 고교
 규구 고치기를 북이 하시니 모든 의심이 비로소 곳치더라 로마의 혼 이단의 사름이
 니러러 일홈이 또흔 시몬이라 온나라히 공경하기를 신긋치하니 이 사름은 일즉 다른
 디방에서 여러번 성인의게 쫓기임을 님은 재라 성인의 나가신 재를 트 도성에 드러
 와 해를 방스히 하거늘 성인이 급히 가 분변하실시 말씀이 정직하시니 요술하는 사
 름이 심히 붓그려 말을 전파하야 글오되 너희 무리 나를 버리고 더 상늬은이를 좃츠
 니 내 야모날 승턴하야 직앙을 누리워 너희 무리를 고품게 하리라 괴약이 니르려 요
 술하는 사름이 구름을 타고 곳 올라가니 모든 이 다 놀나고 이상이 넘어거날 성인이
 주께 구하시니 요술하는 사름이 돈연이 마귀의 힘을 일허 공중으로조차 썩러져 다리
 브러지고 정신이 혼미하거늘 이단의 무리들이 성 밧그로 메여 간 후에 죽으니 적이

- ⑤ 치명·승천 : 성인이 십자가를 보고 즐거이 사례하고 군사들에게 감히 예수와 같이할 수 없으니 거꾸로 못 박으라 청하여 청하는 바와 같이하고 천주 강생 후 육십 육년 후에 치명했다.¹⁶⁾

성년광의추계데팔편 일일 성 베드로 종도 탈년

- ③ 시련과 극복 : 헤로더가 성인을 잡아 옥에 가두자, 천주께서 천신을 보내어 옥을 열고 피신하게 했다. 성인을 동여매었던 쇠사슬을 성교회에서 보석으로 꾸며 감추어두었다.¹⁷⁾
- ⑥ 사후 이적 : 천주 강생후 사백오십년에 서국 총왕 왕후의 성덕이 매우

성교하는 자는 다 찬미하기를 마지 아니하되 국왕이 요술을 김히 밋어 그 죽음을 심히 불상이 낙이고 또 경녀 | 잇셔 국왕이 빅계로 유인하되 좃지 아니하야 죽을 죄로 판단하엿더니 후에 이 녀즈 | 성인의 마르치심을 밋은 줄을 알고 더욱 분노를 더하거늘 교우들이 성인의 피하심을 청하되 좃지 아니시다가 모든 이 슬피브리지짐을 인하여 명강하야 성에 나가시더니 멀리보니 예수 | 마조 오시느니라 성인이 압흐로 나아가 마자 무려 곶으되 오 주야 어되로 가시느이잇가 예수 | 곶으샤되 다시 십자가의 못박히려 가노라 성인이 주은을 촘촘이 씨드르시고 도라와 모든 이의게 고히야 곶으샤되 주명이라 가히 어기지 못하리로다 치명함이 내의 원이라 하시고 임의 성교회의 근기되심으로 고난을 피치아니하샤 씨 모든 사람을 권면코져 하시더니 군사 | 줄연이 드러와 잡아 옥에 보내니 성 바로 종도 | 성인에서 몬져 가도이신지라 뜻이 곶고 도 | 합하야 권화하심이 심히 만하 옥줄 형태 다 교화를 넘어 또한 능히 마귀를 모르며 병을 낮게 하야 구하는 대로 응하더니 아홉 달 후에 또한 주를 위하야 치명하니라”, 위의 책, 1035~1043쪽.

- 16) “성인의 치명하신 사흔 본일홈이 규산이라 성인이 한번 십자가를 보시매 곳 고비하야 즐거이 사례하시고 십자가 압회 니르러 군사들드려 날너 곶으샤되 내 감히 예수로 더브러 곶치하지 못하리니 청컨대 것구루 못박으라 군사 | 마츨내 청하시는 바와 곶치하니 세는 턴주 강싱후 록십륙년하지후 칠일이오 위에 계신지 삼십삼년이라라 와디가노에 장스르고 선던을 세워 공경하니 각국에 넘금과 빅성이 도성에 나와 성묘의 고비하는 자 | 쓴혀지지 아니터라”, 위의 책, 1035~1043쪽.
- 17) “예수 | 승턴하신 후에 포확한 넘금 헤로더 | 임의 종도 성장 야고버를 죽이매 성 베드로 종도 | 성교의 웃듬이심을 듯고 잡아 옥에 가도앗더니 턴주 | 턴신을 보내샤 옥을 열고 내여 노하시니 드드여 안디오기가 성에 피하신지라 후에 동혀미이었던 바 쇠사슬을 성교회에서 금과보비로 꾸며 여루사름부에 곶초앗더니”, 『성년광의』 3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265~267쪽.

높아 예루살렘 주교가 정성을 표하고자 쇠사슬을 왕후에게 보냈다. 이 사슬을 로마에 보내 베드로 성인이 로마에서 치명할 때 십자가에 매었던 쇠사슬과 이를 맞춰보니, 감쪽같이 이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기적으로 당을 세우고 이 사슬을 모시니, 항상 성적이 나타나고, 수백 년 후에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¹⁸⁾

위에 정리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는 모두 세 번에 걸쳐 전하는 데, 이 세 편의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예수가 베푼 기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갑자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 처모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를 예수가 들어준 내용, 옥에 갇힌 그를 천신이 구하는 내용 그리고 그를 옥죄었던 쇠사슬에서 수많은 기적이 오래도록 일어났다는 이야기 등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는 믿음 이후에 벌어진 술한 기적들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또 다른 베드로 성인의 전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월 29일의 베

18) “턴쥬 강싱후 대략 스빅오십년에 셔국 총왕의 왕후 일흠 어득시아 | 전원의 칙오기를 위하야 여루사름에 가 예수의 자취예 쥬빅힐 식 왕후의 성덕이 모든 이에 초월함으로 여루사름 주교 | 이 쇠사슬의 시말을 붓히고 그 정성을 표코져하샤 이 쇠사슬을 왕후에게 보내시니 임의 밧으매 공경하고 사례하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더라 왕후 | 혼 썬이 잇셔 로마 총왕의 안해되엿더니 곳 그 사슬을 싸 로마에 보내어 그 썬노 하여곰 교종의 고탈야 붓힐 식 성 베드로종도 | 로마에서 치명하실 쟈 십자가의 밧이던 쇠사슬을 호흔 성교곳집에 곱초앗더니 교종이 이에 왕후의 드린 바 사슬과 견조아 불시 두 사슬이 홀연이 스스로 언하야 도모지 혼켄이 업는지라 이 성적을 보매 놀나고 것저 더욱 공경을 더으샤 곳 당을 세우고 미시니 일노조차 흥상 성격이 나타나 므러 부마흔 자 | 이사슬노 목에 걸거나 몸에 미면 마귀곳 멀니 도망하더라 썬 수백년 후에 총왕 오톤이 로마에 니르러 교종의 비울시 피섯던 혼 대신이 부마하야 스스로 너홀어 스지를 다 상해와 의원이 능히 다스리지 못하느니라 교종이 이 사슬을 가져 대신의 목에 거니 마귀 즉시 소리를 땡렬이 하야 드라나고 대신이 전과 같치 평안하고 썬 허다한 성적은 다 기록지 못홀너라”, 위의 책, 265~267쪽.

드로 성인의 이야기도 일반적인 성인전과 같이 인물 소개부터 시작한다. 성인전의 ‘인물 소개’ 부분에서는 대체로 출신 지역과 부모의 입교 여부, 성인의 성품과 능력 등이 서술되는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부모가 외교인이었지만, 아들이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힘써 설명하는 것을 보고 이를 금하기보다는 기이하게 여기며 대학을 보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¹⁹⁾ 극기를 계속하던 성인은 수양에 더욱 정진하기 위해 세속을 버리고 회에 들어 “음식을 박히히고 의복을 추히히시며 슈고로움을 친히히시고 자기를 적게” 하는 등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²⁰⁾ 하지만 목상을 이어가던 그에게 한 수사가 누명을 씌워 베드로는 다른 지방으로 쫓겨나는 등의 시련을 겪는다. 천주는 시련 속에서도 성인의 감사함과 부끄러움이 깊은 것을 보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며,²¹⁾ 이후 성인은 성적을 베풀며 교화를 펼친다.²²⁾

19) ①인물 소개-“성 베드로는 이나리아국 사름이라 부모는 다 이단을 존중하니 성인이 부모의 품에 잇실적브터 곳 이 난을 뛰이 넘어더라 널곱설에 글을 넓으실제 호로는 학당으로서 집에 도라오시니 그 숙부ㅣ 비흔 바를 뜨른대 디답하야 곶으샤디 텃쥬교 신경을 비왔느이다 숙부ㅣ 깃거히지 아니커늘 성인이 바른 말씀으로 힘써 분변히시니 부친이 그 괴이함을 이상이 넘어 금치 아니코 본 고을 대학에 보내는지라, 『성년 광익』 2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757~764쪽.

20) ②수양-“성교금구를 곳이 직회샤 스욕을 버리고 몸을 이그실시 세정은 호리고 더러움을 면키어렵다 하샤 세속을 버려 숨어 닥그려 하시더니 미츰 성 도미니고ㅣ 이 고을에 림하샤 데즈를 삼으시는지라 붉은 스승을 섬겨 회에 드시매 비코 고신극기움을 더하샤 음식을 박히히고 의복을 추히히시며 슈고로움을 친히히시고 자기를 적게하샤 수년을 이긋치 하시매 점점 병을 일운지라”, 위의 책, 757~764쪽.

21) ③시련과 극복(기적)-“텃쥬ㅣ 특별이 보하샤 신력을 더어 주시더라 호르논 문을 닥고 목상하시더니 홀연이 보니 치명하신 세 위 성녀 악네스와 가타리나와 세실리아ㅣ 쥬를 디신하야 느려와 위로하고 면려히실 시 미츰 혼 슈스ㅣ 문밖기 지나다가 녀인의 소리를 듯고 원장제 고히니 이튼날 모든 이를 모하 일제히 힐문하실시 성인이 혼말슴도 디답지 아니시고 쫓기임을 넘어 다른 디방에 나가 오라도록 텃쥬ㅣ 원통함을 벗겨주심이 업거늘 고상을 향하야 눈물을 흘녀 구하더니 예수 고상이 곳 십자가 우호로 조차 기유하야 곶으샤디 나는 무슴 죄로 이 고로움을 밧앗느뇨 흐믈며 네 고난이 능히 내 고난에 만분지 일을 당치 못홀 거시니 엇지 어려워 흐느뇨 죄로 인하야 고로움과 욕을 밧으른 도적의 형벌이니 무슴 공이 잇시리오 하시는지라 성인이 감사

성인은 자신이 별한 포악한 이에 의해 치명할 줄을 알고 승천할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강론을 이어가고, 결국 자신을 노리는 악당의 칼에 목숨을 잃는다.²³⁾ 성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묘에서는 많은 기적이

하고 붓그러움이 더욱 깊혀 경슈하기를 더욱 힘쓰시더니 오라지 아나 슈 | 그 경성 되고 근절함을 보샤 더신하야 그 의심을 프르시니 모든 이 비로 존경하더라”, 위의 책, 757~764쪽.

- 22) ④교화(기적) - “후에 옷사름의 명을 인하야 모든 디방에 순행하실시 니르시는 곳마다 풍속이 크게 변하야 아름답은지라 ……성인이 모든 이의 뜻을 굳게 코져하야 쓸어 던져의 허락하시기를 구하시매 홀연이 두터운 구름이 날을 가리워 마치 장막과 수플 아래 잇심과 굿더니 강론하시기를 마츠매 구름이 비로소 훑터지는지라 찬송하는 소릭 거리에 그득하야 모든 이의 신덕이 비로 더하더라 두 농스하는 사름이 잇시니 한 나흔 봉교한 사름이오 한나흔 샤망하는 사름이라 봉교한 자는 주의 은혜 더으심을 구하야 수비로 거두고 샤망하는 자는 마귀에게 복을 구하야 다만 풀만 무성하니 일노 인하야 마귀게 구하던 자 | 정도로 도라와 감화하는 자 | 심히 만코 이단의 한 사름이 그 구변을 밋고 성인을 더하야 어즈러운 말노 쫓거리거늘 성인이 쯤쯤이 더 답지 아니시고 오직 텨쨌의 처치하기를 비르시니 이 사름이 즉시 병어리 되어 능히 한 말도 내지 못하니 모든이 놀나 악을 곳치고 선에 올른 자 | 가히 헤지 못홀너라 나우나 고을에 전교하실 쎄에 날이 저물어 당에 머므르시더니 밤이 깊흔 후에 당 우회 이상한 빛치 쏘이는지라 스면에 빅성이 와보매 성인이 계시거늘 싸희 업딕은 은혜를 구하니 이단이 투괴하야 한 사름으로 하여곰 거츠 병든 모양을 씬여 불상이 넉 이심을 구하야 성인을 능욕하기를 도모하거늘 성인이 그 간악함을 알으시고 꾸지져 곶으샤디 네 거츠 병으로쎄 나를 속이니 내 텨쨌의 구하야 너를 춤 병으로쎄 벌하리라 하시니 말이 밋츠매 병이 입의 그 몸에 밋쳐 심히 위티하야 거의 죽을지라 병든 자 | 전죄를 통회하고 관셔하심을 슬희 구하거늘 성인이 정도로쎄 훈계하시고 십자를 그어 낫게 하시니 이일 후에 원슈의 한함이 더욱 깊혀 성인을 반드시 허하러 하니”, 위의 책, 757~764쪽.

- 23) ⑤치명 - “성인이 또한 치명의 큰 은혜 이 사름의 손에 일울 줄을 알으시고 도리 강론 하실 쎄에 모든 이를 더하야 곶으샤디 이단의 무리 언마금으로쎄 용팅한 사름을 사 마만이 나를 죽이려 한노도다 내 슈를 위하야 죽음은 내의 근본 원이라 감심으로 즐겨 밋아 두릴 거시 업거니와 가히 우스운 자는 이 무리 엇지 홀노 내 칭전에 그 꿩홀 한 계교를 조당함을 두리고 도로혀 내 죽은 후에 그 마든 한 썩을 썩칠 줄을 두리지 아앗노노 하시더라 십스일이 지나매 미랑 고을에 가시니 악당이 마만이 중로에 업딕 여 칼홀 쎄여 기드러거늘 성인이 호말도 두려움이 업시 굿이셔샤 상함을 밋으실시 오히려 신경을 외오신 후에 싸희 업터지시고 업터지신 후에 또 손가락으로 피를 썩

일어난다.²⁴⁾

이렇게 성인의 행동을 중심으로 성인전을 정리하면, 이 이야기들은 대체로 성인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영웅담과 유사해 보인다. 주인공의 의지와 노력이 성인이 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되는 것이다. 하지만 <성년광익>에 실린 성인전을 자세히 검토하면,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은 천주의 의지 즉, 천주의 기적이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숭한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예수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듯,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시련을 겪고 그 시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모두 천주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베드로가 모함을 받은 것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내려온 세 성녀 때문이었다. 천주를 대신 하여 베드로에게 내려온 “성녀 악네스와 가타리나와 세실니아”를 낫선 여성으로 오해하여 수사들이 그를 내친 것이다. 성녀를 보내어 오해를 받게 하고 수도원에서 쫓겨나 힘들고 억울한 마음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만든 것도, 후에 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천주였다. 즉 베드로의 시련과 극복은 모두 천주의 의지에 의해 생긴 일이었다. ④교화 부분 역시 기적이 중심이 된다. 베드로는 천주를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에게 각각 상과 벌을 주기 위해 천주에게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어 경첫대문을 싸희 쓰고 쓰기를 못츠시매 하늘을 우러러 브르지져 굴으샤디 우리 슈 턴쥬여 내 본디 공도 업고 덕도 업스니 오직 인즈로 내 령혼을 거두어 밧으쇼셔 흐시니 악당이 또 적은 칼홀 싸희 만히 썰너 귀운이 곤허지신 후에 굿치니라 세는 턴쥬 강성 후 일천이빅 오십이년이라”, 위의 책, 757~764쪽.

- 24) ⑥사후 이적-“악당이 사망을 브리고 정도에 도라온 자ㅣ 만터라 오라지 야냐 성시를 움겨 미랑 고을 갖가온 큰 성던에 피실 시 보내고 맞는 빅성이 초블을 잡아 공경흐는 쫓을 표흐니 잡은 바 초블이 다 불이 업시 스스로 브터 오래도록 써지지 아니호고 ……이제 니르히 성묘에 와 은혜를 구흐는 자ㅣ 다 그 은퓌를 넘더라”, 위의 책, 757~764쪽.

그 결과 천주를 믿는 이의 농사는 풍작이 되고, 믿지 않는 이의 농사는 흉작이 되며 이에 더해 믿음이 없는 자는 병어리가 되기까지 한다. 천주는 성인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천주를 믿지 않는 이와 믿는 이에게 각각 벌과 상을 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킨 것이다. 사후에도 “성시” 주변에 저절로 촛불이 붙어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다든지 성인을 모욕하여 병어리가 된다든지, 또는 성인의 묘에서 은혜를 구하여 그 덕을 입는 등의 여러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기적을 중심으로 보면 베드로의 전기는 천주가 베드로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의지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기적은 성인이 간절히 기구하여 일어나고 또 어떤 기적은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분명 성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 성인 전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처음부터 선한 성품을 지녀 믿음을 굳건하게 실천한 이들과 바르지 않은 길을 가다가 크게 깨닫고 믿음을 실천한 이들²⁵⁾, 많은 사람들에게 천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교화에 힘쓴 이들²⁶⁾과 세속과 거리

25) “나는 곳 너의 해하는 자 예수로라 반로 크게 놀나 전에 무도함을 통회하고 슬피 고 하야 고평오디 오 주여 날호 하여곰 무어슬 하라하시니니잇고 디답하야 고평오사디 성에 나아가라 너를 가르칠 사람이 잇스리라 하시니 조찬자ㅣ 또한 이 소리를 다 드렸더라”, 성 바오로 사도 회심, 『성년광의』 1권, 226~230쪽.

26) “성인이 어려서 성경과 모든 글을 비호지 아니하여도 능히 스스로 알고 그 직조와 학문과 덕행이 다 마초야 노성흔 자에서 말니지나더라. 턴쥬 인즈를 의지하야 여러 번 성적을 나타내사 빈 곳집을 츠오사 흥상 써도 다하지 아니하니 성인의 성덕 곳 아니면 결단코 능히 이긋치 못홀너라”, 성 세바스테아의 베드로 주교, 위의 책, 174~176쪽; “예수 승천하신 후 십일에 성신이 강림하사 종도의 믿음에 흠만하사 만흔 괴이한 은혜를 주시니 능히 성적을 행하고 능히 이국말을 하실시 이날에 성 베드루ㅣ 강론하야 고평오사디 십즈가에 못박하신 예수는 춤 턴쥬ㅣ시오 춤 구세쥬ㅣ라 하시니 듯는자ㅣ 놀나고 붓그려 통회치 아닛는 자ㅣ 업는지라”, 성 베드로 사도 안티오키아 주교 착좌, 위의 책, 331~334쪽.

를 두고 외딴 곳에서 혼자 수양을 하던 성인들의 이야기²⁷⁾는 겉으로 보이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에서 기적은 ⑥사후 이적은 물론이고 ①인물소개²⁸⁾ ②수양 ③시련과 극복 ④교화 등 각각의 단계에서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

성인의 의지와 행위가 중심이 되는 ‘시련과 극복’보다 ‘기적’이 더 핵심적인 사건으로 제시되는 것은 여성 성인전도 마찬가지이다. <성년광익>의 성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있다.²⁹⁾

27) 대표적으로 ‘성 바오로 은수’를 들 수 있다. ‘성 바오로’는 세속을 피해 숨어 닦는 성인 중 으뜸이라고 하며, 그가 숨어지낼 때 천주는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전하며 그의 수양을 도왔다. 성 바오로 은수, 위의 책, 192~197쪽.

28) 가령 ‘성 스테파노 국왕’은 천주가 천신을 보내 큰 일을 행할 아들을 보내리라 예언한 후에 태어났다. 왕후가 스테파노를 잉태할 때 꿈에 스테파노 성인이 나타나 아들의 이름을 스테파노라 했으며, 이후 국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리고 죽은 뒤에 여러 기적이 일어났다. 성 스테파노 국왕, 『성년광익』 3권, 404~408쪽.

29) ①인물소개-“성녀 아가다는 시시리아국 벼슬하는 집 딸이니 귀하고 쏘도 가음연지라 정성으로 성모를 맞드려”

②수경(守貞) 결심-“어려로부터 슈정하기로 뜻을 덩혔더니”

③1차 시련-“이 쎄에 샤교 | 횡횡히더니 밋 본 디방관원이 성녀를 보고 지물과 식을 탐하야 유감하니 성녀 | 좃지 아니커늘 관원이 성묘일노써 잡아 ㅁ만이 모든 창녀를 분부하야 만흔 계교로 유감하디 ……형벌노 저히디 성녀의 엄흔 말씀과 바른 의리 전에 비겨 더욱 굶은지라 관원이 크게 노하야 군스를 명하야 쇠집개로 두것슬 집어 버히니 성녀 | 압흠을 즐고 화흔 얼굴노 곱오샤디 엇지 너는 녀인의 젃살 먹지 아니하고 자랐느냐 엇지 혹독히 상해흠을 이긋치 하느뇨 관원의 노흠이 더욱 심하야 옥에 가도고 음식을 쓴호니”

④1차 시련의 극복-“밤에 홀연이 노인이 압희 니르러 안위하야 곱오디 네 적이 상흠을 밋을 쎄에 나 | 곁히 잇서 친히 보웃기로 특별이 여진 약을 ㅁ초야 너를 낮게 하노라 성녀 | 그 남죽음을 보고 스양하야 곱오샤디 나 | 전에도 병이 잇스매 약을 써다스리지 아났시니 다만 턴쥬의 인즈를 브라노라 노인이 곱오디 나는 이 예수의 종도 베드루 | 니 턴쥬 | 나를 보내샤 너를 도라보게 하시라 하시고 딸이 못츠매 피지 아니하니 성녀의 젃이 온전이 낮고 쏘 괴이흔 빗치 옥 안희 크게 쏘이느니라 옥줄이 크게 놀나 문잠그기를 겨를치 못하고 스면으로 도망하야 훗터지니 흥가지로 갖치인 교유 | 성녀를 권하야 쎄를 트 다라나라하디 성녀 | 좃지 아니시더라 나흠이 지나 다시 무르식 상흔 흔적이 온전이 업느니라”

①인물소개 ②수정(守貞) 결심 ③1차 시련 ④1차 시련의 극복 (⑤2차 시련 ⑥2차 시련의 극복) ⑦수양·극기 (⑧묵시) ⑨승천 ⑩사후 이적³⁰⁾

위의 순서는 여성 성인전의 줄거리를 정리한 것으로, 괄호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앞서 살펴본 남성 성인전의 줄거리와 큰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②수정 결심’ 부분이 대부분의 여성 성인전에 나타나며, 수정을 결심하고 이로 인한 시련을 견뎌낸 후에 승천하는 이야기³¹⁾가 <성년광익>에 실린 전체 여성 성인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남성 성인전과 구별되는 여성 성인전만의 특이한 사항이라 하겠다. 남성 성인들에게서도 때로 수정을 결심하는 이야기가 나오며 동정부부의 이야기

⑤2차 시련-“관원이 크게 놀나고 괴이히 녀여 명호야 큰 불에 툇오라 하니 성녀 | 불에 드러가시매”

⑥2차 시련의 극복-“짜히 죽시 크게 진동호야 집이 만히 든져져 관원의 두 벗이 놀여 죽으니 빅성이 다 두리고 혼 하는지라 관원이 빅성이 어즈러울가 두려 성녀를 쓰어내여 다시 옥에 가도니”

⑨승천-“성녀 | 그몸의 타고 상함을 보시매 던쥬의 주신 바 일상 은혜를 풀어 사려 호시고 태연이 세상을 버리시니 쎄는 던쥬 강심 후 이빅 오십일년이라”

⑩사후 이적-“죽으신 후에 얼골뵈치 심시와 그고 이상한 향기 집에 그득호더니 장스홀 쎄에 두어 던신이 느려와 적은 비를 무덤 압회 세우니 그 비문에 글오되 결정호령훈이여 겁개와 불을 감심호야 능히 쥬의 영복을 누리며 능히 세상호린 거슬 몹혔다 호니라 장스홀 후에 관원이 그 직물을 탐호야 친히 성녀의 집에 가 적물호야 도라올 식 돌기 느려 하슈를 건너라 호더니 돌이 관원을 물고 차하슈에 쎄지워 죽이고 성녀의 무덤에 갓가온디방에 혼 불 나는 산이 있더니 홀연이 불이 번쳐 스면으로 타규치 못호리라 성녀의 관속에 덤혔던 겁을 엇어 불뵈는 곳에 놓히 드니 불이 죽시 쎄지고 빅년후에 이 산에 불이 쎄 발호야 장춘 호 집에 니를지라 집쥬인이 거룩호 집을 조금 엇어두엇더니 막디 쎄히 돌아 불압회 세우니 불이 죽시 멀호니라”, 성녀 아가타 동정 치명, 『성년광익』 1권, 276~280쪽.

30) 김정경(2017), 앞의 글, 229쪽.

31) <성년광익>에 실린 총 79명의 여성 성인 가운데 동정을 결심하고 이를 지킨 이는 29명이다. 하지만 29명 외에도 동정을 지키고 승천한 이들이 다수이다. 29명은 동정 허원 또는 동정 결심이 문면에 명시된 경우이다.

도 전하기는 하지만, 남성 성인의 동정은 여성 성인의 동정처럼 자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 여성 성인들이 성모 마리아를 삶의 모델로 삼았으며, 당시 여성이 종교적 삶을 실천하는 데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있지만 여성 성인전에서도 남성 성인전과 마찬가지로 기적은 삶의 여러 단계에서 나타난다. <기해일기>와 같은 세례명을 가진 <성년광익>의 여성 성인 16명(세례명은 11개) 가운데 ‘성부 엘리사벳 국후’와 ‘성녀 카타리나 동정’을 제외한 14명 성인의 이야기에는 모두 ‘기적’이 나타난다.³²⁾

관원이 듯고 군수를 보내여 잡아 처음에 뉘흔 말노써 곳치기를 권히되 곳

32) <기해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인에 속하는 성녀 가타리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바시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녀 가타리나 세나 동신(4월 30일), 『성년광익』 2권, 764~771쪽.

①인물소개 이다리아국 세나고을 사람. 6살에 형들과 한가로이 놀다가 우러러보니 예수, 베드로, 바오로, 요왕이 기쁜 얼굴로 성녀를 봄. 성인이 된 근거가 여기에서 비롯됨 ②수정(守貞) 결심 7세 동정 맹세 ③1차 시련 부모 혼인 강요로 머리칼을 베고 얼굴을 상하게 함. 부모의 괴롭힘을 기뻐하며 감내함 ④1차 시련의 극복 부모가 성녀 이마에 흰 비둘기를 보고 뜻을 따름 ⑤수양·극기 성 도미니고가 나타나 위로하는 기적이 나타남. 예수 훈계하심. 창질난 이의 고름을 빠는 등 고난을 극복하여 예수의 기적(수족, 유방에 오상의 자취를 새겨줌)을 입음 ⑥목시 병을 얻어 종기일을 알고 ⑨승천 평안히 세상을 버림(예수 강생 후 1380년) ⑩사후 이적 사후 시신에서 성적이 일어남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바시 동신(5월 27일), 위의 책, 880~887쪽.

①인물소개 이다리아국 브로른시아 부 어려서부터 믿음이 굳음 (②수정(守貞) 결심) 12세에 수정하기로 뜻을 정함 ⑤수양·극기 극기, 수양 일생에 성적을 많이 나타냄 ③1차 시련 천주가 준 시련 : 5년간 마귀가 있는 호수에서 보내야 함 ④1차 시련의 극복 신공과 극기로 시련을 극복 천신이 고난을 이긴 데 대한 보상으로 꽃과 옷을 보내 씌우고 입힘 ⑥목시 종기일에 다다르자 천주가 특별히 중병을 주셔 형용치 못할 아픔을 견디. 기꺼이 고난을 감내 ⑨승천 천주 강생후 1607년인 41세 되던 해에 승천

이 좃지 아니시니 입을 치고 몸을 편퓌하야 곳마다 가족이 찍여지고 슬이 터진지라 옥에 가도앗더니 텃신이 나타나 위로하고 밋음을 굿이하고 쫓을 독실이 하야 공 일우기를 권면하시니 경각이 상함이 온전이 나아 흔적이 업는지라 꺾히 잇던 오십인이 이 괴이함을 보고 끌어 교에 들기를 구하더라 이튿날 관원이 엄히 쳐 중히 상해왔더니 텃신이 다시와 뵈니 상함이 또 온전이 낮고 옥 잠을쇠 스스로 열니겨늘 성녀ㅣ 종용이 옥에 나가시니 꺾히 사름이 막을 법이 업고 모혀 보논 자ㅣ 대략 수빅인이라 성녀ㅣ 이 쟈에 오직 사름 구함으로써 힘쓸줄을 알으샤 정도와 사망의 근본을 베프시고 텃쥬 예수의 강심 구속하신 대운을 강론하시니 말슴이 비록 간략하나 곳 사름의 밋음에 들고 쫓 이 괴이한 일이 사름의 감동함을 알외여 므릿 구경하논자ㅣ 다 밋어 좃논지라 관원이 성녀 한 사름을 금하야 썰희를 쓴코져 하다가 즉시 수빅인을 더어 그 전함을 널니니 이를 보매 관원도 맛당이 누우쳐 씨드를 거시로되 이에 노흔 밋음을 크게 발하야 친히 리흔 독기를 가지고 성녀의 머리를 찍겨늘 성녀ㅣ 목을 느르혀 날을 맞으시니 쟈는 텃쥬 강심후 삼빅륙 십삼년이러라³³⁾

그리고 기적은 위에서 정리한 줄거리 가운데 ④1차 시련의 극복 ⑥2차 시련의 극복 ⑧묵시 ⑨승천 ⑩사후이적 부분에서 나타나며 그 유형도 구제, 처벌, 사후이적, 예시, 입증, 응답, 깨우침, 보상, 극복 등 다양하다.

이처럼 삶의 다양한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까닭은 이후에 살펴볼 <기해일기>에는 이러한 양상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년광익>에 실린 전기들은 개인의 의지 및 노력과는 무관하게 성인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는 기적을 다수 담고 있으며, 이것이 <성년광익>과 <기해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33) 십이일성녀분다동신치명, 『성년광익』 4권, 689~690쪽.

3. <기해일기>와 인내의 서사

<기해일기>는 “동정녀와 여성 순교자의 비중이 높아 천주교의 유입으로 변화된 여성 인식을 검토하기에 적절”³⁴⁾하다는 점 그리고 초창기 조선 서학 신도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의 순교자전 가운데 비교적 깊이 있게 연구되어온 자료이다.

기존 논의들은 주로 <기해일기>의 서사구조를 정리하거나 이 자료에 나타난 여성 순교자의 인식을 탐구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윤인선은 <기해일기>에 나타난 고난의 양상을 평신도와 수도자에 따라 나누고, 다시 이를 순교-자질의 형성과정과 순교-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난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³⁵⁾ 이유진은 <기해일기>와 <한국천주교회사>에 수록된 한국 천주교 순교자 설화들을 ㄱ.주인공 소개 ㄴ.입교과정 ㄷ.1차 고난 및 고난의 극복 ㄹ.2차 고난 및 고난의 극복 ㅁ.순교로 정리하고 특히 여성 동정 순교자 전기의 서사전개상의 특징, 주인공의 성격과 주제를 고찰하였다.³⁶⁾ 김정경은 <기해일기> 여성 순교자들의 기록을 조선후기 유학자들이 쓴 열녀전과 비교하여 여성이 주체화되는 양상과 여성의 삶을 서술하는 방식의 관계를 검토했다.³⁷⁾ 이처럼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순교자들이 평신도인지 수도자인지 혹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동정을 맹세하고 지켰는지에 따른 이야기의 차이와 각각의 의미에 주목해왔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 그리고 이외에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신자인지,

34) 김정경, 『조선후기 여성한글산문연구』, 서강대 출판부, 2016, 191쪽.

35) 윤인선, 『<기해일기>에 나타난 순교 경험의 서사화 양상』, 『기호학 연구』 38, 한국기호학회, 2013, 183~212쪽.

36) 이유진, 앞의 글, 249~290쪽.

37)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여신도의 주체화 방식과 생애 기술 방식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33~62쪽.

아니면 중간에 크게 깨우쳐 굳은 신앙을 갖게 된 자인지 혹은 배교한 적이 있는지 한 번도 배교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이야기는 약간씩 달라진다. 하지만 모든 순교자전에 공통된 것은 이들이 모진 고문과 형벌에도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치명한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 역시 위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고난’의 서사로서의 <기해일기>이다. <성년광익>이 기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면, <기해일기>는 고난의 극복이 주가 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년광익>에 비교적 다양한 고통과 시련의 양상이 제시되는 데에 비해 <기해일기>에서 순교자들에게 닥친 고난은 ①육정 ②성적인 욕망 ③(고문과 형벌로 인한) 육체적 고통의 세 가지 정도이다. 이 가운데 ①과 ③은 대부분의 순교자들에게 공통된 시련이며, ②는 여성 순교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시련이다.

기해(1839) 2월에 군난이 대기하여 장부와 장자와 한가지로 잡힌지라. 여러 번 엄형을 받되, 뜻잡음이 견고하여 굴복치 아니하는지라. 관원이 백단으로 피이고 달래되, 종내 한결같은지라. 연일 수형하여 살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되, 기색이 완연하여 집안 사람들이 자주 와 위문한즉 제성 권면함이 평상시보다 크게 다르더라. 노모와 장부와 자녀들이 있으나, 육정을 버리고 가산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만 위주 피명하기로 뜻을 결단하니, 그 마음이 굳기가 금석 같은지라. 할 일없이 이형조하니, 형관왈 “네 지아비와 자식이 다 놓여 나갔으니, 너도 한 말만 하고 나가 한가지로 살면 세상복이 아니냐?” 답 “각각 주장이오니, 주를 위하여 죽을 따름이로소이다.” 형관의 말이 ‘윤기를 모른다.’ 하고 중형하되, 종시 여일한지라 결안하니, 이 지경에 극히 어려우나 의연히 육정과 세물을 다 끊고 용맹히 세경에서 뛰어나니, 그 평일의 행위가 어떠하므로 이러한 결실하는 은혜를 입는고? 재옥 삼삭, 기해 4월에 참수 치명하니, 연이 57세러라.³⁸⁾(밑줄 필자)

앞서 말했듯이 <기해일기>는 성별과 신분 그리고 나이가 서로 다른 신도들이 배교를 강요하는 고문에 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치명하여 순교 성인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신도들은 어린 자식, 나이 든 부모에 대한 “육정”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순교를 택하며, 이처럼 가족들을 뒤로하고 순교를 택하는 신도들의 이야기가 <기해일기>에는 다수 전한다.

한편 <성년광의>과 <기해일기>에 공통으로 보이는 여성 세례명 11가지 가운데 <기해일기>에 기록된 8가지 세례명의 순교자들은 동정 허원을 한 뒤에 순교했으며, 동정 허원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다른 2가지 세례명을 가진 순교자들도 동정 치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³⁹⁾ 이들은 동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떠나고, 궁인의 신분을 버리는 등 위험을 감수하였으며, 동정부부로서의 삶을 살면서 육체의 유혹에 굴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⁴⁰⁾ 이처럼 신도들은 가족 간의 정, 남녀 간의 정을 극복해야 할 시련으로 여기고 이를 극복하여 순교의 자격을 얻고자 했다.⁴¹⁾ 그리하여 이와 같은 시련을 극복한 이들은 배교를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풀어주겠다는 관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택한다.

<기해일기>의 순교자들은 성인전을 읽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닮으려

38) 박안나, 득손의 모친, 현석문, 『기해일기』, 하성래 감수, 성·황석두루가서원, 1986, 52~53쪽.

39) ‘동정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의 경우만 동정 치명하지 않은 것이다. <기해일기>의 여성 순교자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교자들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40) “수정하기로 뜻을 정하였더니, 연지 삼십세에 홀연히 유감을 입어 스스로 생각하되 “수정함이 극난하니, 평탄한 길로 감이 방해로움이 없으리로다.” 하여, 이 생각이 점점 심하여 육정을 공격함이 두어 해에 그치지 아니함에 엄재를 지키며 고 채로 몸을 쳐 날로 이기고 달로 싸워, 힘써 대적함에 자연 신안 심순하더라.” 정 엘리사벳, 『기해일기』, 117~118쪽.

41) 김정경(2017), 앞의 글, 136쪽.

했을 것이다. 동정 성인의 이름을 자신의 세례명으로 하고 동정을 지키려 애썼으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드러내고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인 것 등은 <성년광익>에 나타난 성인의 모습과 유사하다. 하지만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년광익>은 성인들의 노력과 의지보다는 천주의 기적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데 반해, <기해일기>에는 단 두 편을 제외하고는 천주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기적의 서사로 보기는 어렵다.⁴²⁾ <기해일기> 순교자들의 삶은 천주가 명시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성인전과는 다르다. <기해일기>와 <성년광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해일기>에는 <성년광익>에서 중심이 되는 기적이 문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기해일기>는 성인의 삶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기록한 전기이다. 하지만 성인전에 나타난 기적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

42) <기해일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이야기는 다음의 두 편 뿐이다. “형제를 다 옷을 벗기고 적신으로 때리며 능욕하며 조롱하다가 나중에 불로 몸을 지킴이 열 두 곳이라. 살이 몹시 타되, 기상이 여일하고 한결 같으니, 오히려 저희들이 진력하여 간에 가두고 포장이 포졸에게 분부하여 “옷을 벗기고 겁육하라.” 하니, 이 때를 당하여 골룸바가 첩첩 약한 여자의 힘으로 옥을 면치 못할러니, 격외에 주은으로 보호하심을 입어 용맹한 힘이 강포한 자가 감히 범치 못하니, 성총을 가득히 입은 자는 인력으로 능히 땀박치 못함을 가히 알러라. 4.5일이 됨에 불에 탄 곳과 중형에 상한 흔적이 없이 낮고 기운과 안색이 여전하니 귀신을 접한가 의심하여 ‘부적’을 써 그 몸에 붙이고 진언을 엮하더라.”(김 골룸바, 『기해일기』, 103~104쪽); “그 후로 집안 군난이 항상 끊어지지 아니하여, 성서 한 자를 두고 불 길이 없고, 또한 교우의 내왕을 엄금하는 고로 경문을 배우지 못하고, 강론 말씀을 듣지 못함에, 항상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하더니, 겨우 틈을 얻어 오상경 전승을 배웠으나 후송이 있다하되 못 배워, 항상 원하며 얻어 배우기를 구하더니, 하루는 밤에 앉아 생각하기를 “주모께서 얻어 보게 하려 하시면 쉬우리라.”하여, 더욱 마음이 간절하더니, 공중으로부터 한 소리로 말하기를 “오주예수 극진 지결 성체지오상”하는 소리가 들리는 지라. 마음에 의심없이 이 경문인 줄을 알고 엮드리어 그 구절을 염함에, 그 아래는 절로 알던 것같이 엮하여, 날마다 이대로 하다가 그 후에 본문을 얻어 보니 날날이 부합하더라.”(이 막달레나, 『기해일기』, 171~172쪽)

이 아니다. 조선의 천주교 신도들은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이 글에서는 순교자들의 순교에의 열망, 특히 참수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천주에게 선택받은 자가 되려면 어찌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들이 내놓은 유일한 답안이라고 생각한다. 기적을 자기 삶의 이야기로 담아내기 위해 이들은 고난이 더욱 심해지기를 그리하여 끝내 자신의 목에 칼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기해일기>의 순교 성인들의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들이 옥에서의 죽음이 반드시 관리의 칼에 의한 참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절로 죽음에 이르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사실이다.

아가타는 칼에 죽기를 원하여 항상 천주께 간구하는지라. 삼모장으로 혹독히 침이 오죽하리오마는 중내 죽지 아니하는지라. 같이 잡히어 서로 의지하던 박 루치아는 먼저 치명하고 세월이 점점 길어가니, 마음이 실로 바쁜 중 외문에 들리는 말이 “옥중에서 죽도록 버려 둔다.” 하니, “평생에 죄는 많고 공이 없는 제 탓이로다.” 하여, 통회를 더욱 힘써 하며 “막비주명이라. 이 은혜도 내게는 오히려 과하되 항상 칼에 치명하기를 바라노라.” 하더니, 재옥육삭, 기해 8월 19일에 참수 치명하니 연이 50세러라.⁴³⁾(밀줄 필자)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자들은 순교를 “결실하는 은혜”로 여기고, 옥에서 죽는 것도 과하지만 “항상 칼에 치명하기를 바”란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순교 직전의 상태에 도달하고, 자신의 의지로는 행할 수 없는 참수를 기다리는 것이다.

성인이 형벌 맞기를 청원하샤 굿이 굴치 아니시니 형벌호는 군스로 하여

43) 전 아가타, 『기해일기』, 95~98쪽.

곰 법장에 잡아가 올흔편 손을 시작하야 손가락 마다 촌촌이 썩여 왼편 손에
 니르고 손으로브터 발에 니르히 다 이 곳치 하니 성인이 곱히 이 형벌이 적
이 이전 비반흠을 보속홀 줄을 깃거하샤 마춤내 그 어려움을 씨듯지 못하샤
 슈족을 썩여 다하고 온몸에 가족과 슬이 조각마다 브셔져 비늘긋흐매 비로
 소 머리를 버히니 쎄는 턴쥬강싱후 스빅이십년이라44)(밑줄 필자)

오직 성인이 턴쥬를 의지하샤 다만 호말도 두리지 아니실뿐 아니라 쏘 들
 게 녀키시며 일죽 목상하실 쎄에 예수 고상이 널너 곶오샤되 요왕아 네 나를
 위하야 허다흐 고를 밧앗시니 네 구하느 거슬 받드시 허락하리라 성인이 더
답하야 곶오샤되 다른 거슬 보라지 아냐 오직 구하느니 오쥬는 고중에 고를
더오고 욱우희 욱을 더어 주시면 다행하리로소이다 하시니 성인의 고로움이
더욱 더하시고45)(밑줄 필자)

위의 인용문은 형벌과 고통을 간절히 구하는 <성년광익>에 실린 성인
 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 참조되는 성인들은 자신에게 가해진 형
 벌이 “이전 비반흠을 보속”하는 것이라 여기며, “고중에 고를 더오고 욱
 우희 욱을 더어 주시면 다행”이라며 고통을 더해줄 것을 기원한다. 이들
 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형벌을 천주가 베푸는 은혜이자 기적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다. <성년광익>에 나타난 여러 유형의 기적46) 가운데 조선의
 순교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일시한 기적이 바로 이것이다. 순교자전에는
 성인전에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기적들, 가령 고문을 당하는 성인을
 구해주거나 고문을 가하는 관리에게 벌을 내리거나 또는 교리를 설파하
 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기적이 일어나 형벌을 멈추고 상처를 치료하

44) 성 야고보 치명, 『성년광익』 4권, 856쪽.

45) 성 요한 고수, 『성년광익』, 874~875쪽.

46) <성년광익>에 나타난 기적들은 구제, 처벌과 깨우침, 입증, 예시, 극복, 응답, 보상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김정경(2017), 앞의 글, 236~240쪽.

며, 의식주를 넉넉히 하고 아픈 이를 낫게 하는 등의 이야기가 전하지 않는다. 조선의 순교자들은 오직 자신에게 닥친 고통, 자신의 목에 떨어질 관리의 칼만을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온전히 신의 뜻이라 여기며 기다려야 하는 기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물론 이러한 기적은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칼에 목을 베이는 것 이외에 이들에게 다른 길은 없다. 성인전을 읽으며 독자들이 천주의 기적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궁금해 한다면, 순교자전에서 독자들은 이들이 순교에 이를 때까지 견딜 수 있는가를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결국 모두 순교 성인에 관한 이야기”⁴⁷⁾라 할지라도 순교자들의 고난 극복의 서사와 성인전의 기적의 서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박해시기에 조선의 천주교 신도들은 천주를 위해 가족을 희생하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고통을 견디며 살아있어야 했다. 즉 이들은 “자신의 죽음을 성취해야만 하는 목표로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순교를 향한 일방향의 서사로 의미화”했다.⁴⁸⁾ <성년광익> 이야기가 신에 의해서 자신이 선택받은 이야기 그리하여 신이 자신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기해일기>는 시련을 극복하는 순교자의 의지가 곧 기적이 되는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4. 의무에서 의지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인전은 그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음을 전하

47) 김윤성, 앞의 글, 72쪽.

48) 김정경(2011), 앞의 글, 152쪽; 김정경(2017), 앞의 글, 244쪽.

는 이야기이다. <성년광익>에서는 인물의 태도나 마음보다 천주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므로, 성인전을 읽는다는 것은 언제 어떤 이유로 나타날지 짐작하기 어려운 기적의 드러남을 읽는 것, 모든 것이 천주의 통제 아래 존재한다고 하는, 그리하여 삶의 불가해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⁴⁹⁾

<성년광익>의 이와 같은 특징은 여기에 수록된 성인들의 주체화 과정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한 개인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성년광익>의 성인은 신의 선택으로 그 지위에 서게 된 것이다. 그는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수도자로서, 사도로서, 동정녀로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인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의 궁극적인 기반은 신의 섭리가 행사하는 힘”⁵⁰⁾에 있다고 믿는다.

반면 <기해일기>는 체험의 독특성보다는 모범적인 개인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⁵¹⁾ 다시 말해서 <기해일기>의 획일적인 형식과 내용은 그것이 종교 공동체가 모범적인 인간형으로 상정하는 이들을 기록하고 (재)생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⁵²⁾ 이들의 순교는 스스로를 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주요한 상징적 의례로서 이들의 삶을 기록한 것은 순교 성인들을 공적인 담론에 의해 구성된 개인으로 만들고,⁵³⁾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그들과 같은 공적 개인으로 이끌고자 하는

49) 김정경(2017), 위의 글, 240쪽.

50) 강우성, 『설교, 자서전, 에세이: 미국 개인주의 담론의 기원』, 『미국학 논집』 42집2호, 2010, 108쪽.

51) “개인의 이야기에서 체험의 독특성을 찾기보다 그 사회적 의미를 읽으려는 시도는 일차적으로 모범적인 개인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형태를 현상 유지하려는 정치적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의 글, 112쪽.

52) 위의 글, 113쪽.

목적을 갖는다. 다시 말해 순교자전은 공동체가 인정하고 지향하는 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때 공적인 정체성은 ‘인내’라는 덕목과 긴밀하게 관계된다. <기해일기>의 순교 성인들은 인내를 통해 성인으로 자리매김된다. 조선의 순교자들은 부모와 자식을 향한 정, 성적인 욕망, 육체의 고통을 억누르고 제어함으로써 순교 성인의 자격을 얻는다. 이들에게 기적은 인내의 결과 혹은 보상인 침수의 형태로 일어나며 이를 통해 순교자들은 순교 성인,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스스로를 동일시한다.

<기해일기>뿐만 아니라 <성년광익>에 기록된 성인들도 모두 예수의 삶을 모델로 하여 이를 모방한다.⁵⁴⁾ 그리고 이 때 예수의 삶은 <성년광익>과 <기해일기>가 ‘기적’의 이야기와 ‘인내’의 이야기로 구분되듯이, 서로 다르게 이해된다. 먼저 <성년광익>은 신의 아들로 선택된 예수의 삶에 초점을 맞춘 텍스트이다. 다시 말해 <성년광익>에 실린 성인의 삶은 신의 아들로써 신의 현존을 증명하는 예수의 삶과 유비관계에 놓인다. 반면 <기해일기>는 신의 아들로 나아가는 의지적인 주체로서의 예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유비관계에 있는 이들의 생을 기록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즉, <기해일기>의 순교자들은 의지 혹은 노력이라는 면에서 예수의 일생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전히 되풀이하는 것을 통해 주체가 된다. 가령 <기해일기>에 나이 서른이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⁵⁵⁾ <성년광익>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나이 서른에 잘못

53) 위의 글, 107~138쪽.

54) 성인전은 삶의 개별성을 알레고리적 보편성의 차원으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글, 119쪽 참조.

55) 수정하기로 뜻을 정하였더니, 연지 삼십세에 홀연히 유감을 입어 스스로 생각하되 “수정함이 극난하니, 평탄한 길로 감이 방해로움이 없으리로다.” 하여, 이 생각이 점점 심하여 욕정을 공격함이 두어 해에 그치지 아니함에 엄재를 지키며 고 채로 몸을

을 뉘우치거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인물이 <기해일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서른이라는 나이에 보여준 예수의 행동이 그의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성년광익>은 귀족지위로서의 예수를 <기해일기>는 성취지위로서의 예수를 그리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기적의 이야기를 인내의 이야기로 읽는 것, <성년광익>의 주인공이 수동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인 데 반해 <기해일기>의 주인공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성취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한 개인이 주체가 되는 방식이 달라진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이 ‘의무’에서 ‘의지’로 변화한 데서 이러한 차이점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서학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유학자들 또는 양반들을 주체로 호명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였으며, 이는

쳐 날로 이기고 달로 싸워, 힘써 대적함에 자연 신안 심순하더라. 정 엘리사벳, 『기해일기』, 117~118쪽; 성품이 호준하여 성관하기 전부터 상없는 곳에 놀기를 좋아하며, 방탕하여 절조가 없더니 연관 30에 동생과 내외가 함께 문교하니, 이전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열심 수계함이 모두 한결같더라. 이 아우구스띠노, 『기해일기』, 30쪽; 남 다미아노는 명가 거족이라. 문교 전에는 호협하게 놀아서 무죄배와 여계를 걸어잡기로 일삼더니, 나이 겨우 30에 비로소 성교의 도리를 듣고 성심 수계하더니, 유탁덕이 동국에 임하신 때를 당하여 영세 입교함에, 더욱 열심히 배로 더하고..남 다미아노, 『기해일기』, 42~43쪽; 권 베드로는 ... 집이 심히 가난하므로 미미한 업으로 생애하더니 연지삼십에 열정을 크게 발하여 열경하기를 부지런히 하며, 남의 일을 돌봄에 진심 갈력하여 번삭함을 꺼리지 않고 자기 소임같이 함에 혼근충실함을 모두 탄복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더라. 권 베드로, 『기해일기』, 46~47쪽; 풍과 후로, 자연 교우의 내왕이 아주 없고 도리가 맑지 못하여 10여 년을 아득히 지내다가 30에 이르러 경성 친척 봉교하는 집으로 올라와 도리를 강습하며 독실히 수계하더라. 조 바르바라, 『기해일기』, 109쪽; 나이 거의 30에 비로소 성교의 도리를 듣고 즉시 봉행코자 하나, 몸이 그중에 매인 고로 수계하기가 어려운지라, 뜻을 결단하여 칭병하고 금금을 떠나 나오니, 부친은 외교이라. 포청에서 두 번 결박함을 받고 후에 형조로 보내니, 수삼차 증형에 피가 흐르고 뼈가 드러나되 태연하여 요동치 아니하고 왈 “이제야 우리 은주, 우리 은모의 만고 만년을 호말이나 생각하노라”하며 추호도 어려워하는 형상이 없더라. 며칠이 못 되어 장치가 다 낫고 기력이 강건하니 관졸이 사술로 보고 서로 떠들썩하게 전하더라. 박 루치아, 『기해일기』, 55쪽, 57쪽.(밑줄 필자)

<성년광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해일기>는 무엇보다도 인내와 극기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지가 강조되는 서사이다. <기해일기>의 주인공들은 타율적인 죽음이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개별 주체의 의지를 중시했다. 요컨대 신에게 선택받은 이들의 이야기라는 면에서 <성년광익>은 종교적 선각자의 서사이며, 신을 향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라는 면에서 <기해일기>는 성장소설적 서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⁶⁾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해일기>와 <성년광익>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해일기>의 순교자들의 태도와 기적에 대한 인식을 개인의 의지 혹은 선택 등과 관련하여 서술했으나, 이들의 태도를 주체적 행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들은 독자적인 개체로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성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스스로를 성인의 지위에 뭉으로써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근대적 주체와도, 근대적 주체와도 구분된다는 것이다. 아내의 지위를 지키고 가문에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행한 죽음, 즉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로서의 순절과, 누군가의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순교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순교라는 기적을 성취하고자 했던 천주교 신도들을 저항의 주체로서의 근대적 개인이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성취한 성인의 지위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획득한 것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유교적이고 중세적인 주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해일기>를 중세

56) 이러한 구분은 성 어거스틴의 고백을 ‘성장소설’적 서사에, 코튼 매더의 자서전 『파테르나』를 종교적 선각자의 서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강우성(2010)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적 ‘의무’에서 근대적 ‘의지’로의 변화를 보여주며, 서양의 중세를 탈중세적 방식으로 읽어낸 역설적인 성격을 지닌 텍스트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57) <기해일기>는 조선의 서학 신도들이 단순히 서학의 세계관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를 의미화했음을 보여주는 텍스트로서 의의를 갖는다.58)

57) 물론 이러한 특징을 근대적 개인의 자질에 곧바로 대응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기해일기>에 실린 순교자들의 경우 이들이 “전근대적인 주체화 과정을 거부하고 성인을 닮고자 하는 …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행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주체성을 획득했다기 보다는 “상호 주관적인 상징적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어떤 역할, 세례명 성인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열녀전의 여성들은 당대의 체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순교자전의 여성들은 저항하는 방식으로 주체가 된다는 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열녀전의 여성들은 조선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행함으로써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이 존재하는 방식, 즉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그녀는 순절을 통해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한편 순교자전의 여성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새로운 자아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때의 자아는 순교자 개인이 아닌 중세의 성인이기애, 순교 여성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전의 자신을 버리고 성인의 이름으로 성인의 삶을 산다는 점에서 열녀전의 여성과도 근대적 여성과도 다르다.”, 슬라보예지책,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193쪽 참조; 김정경(2016), 앞의 책, 199쪽, 202쪽.

58) 천편일률적인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텍스트가 전근대적인 서사와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갖는 독특한 서술 방식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검토한 바가 있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면 “넓은 시야를 가진 평가적인 시선이 대상에 대해 판단을 내려 읽는 이로 하여금 그러한 판단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열녀전’의 서술 방식이었다면, 좁은 시야를 가진 공감적인 시선이 대상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순교자전의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순교자전은 3인칭 서사인데도 좁은 시야를 취함으로써 1인칭 시점으로 된 텍스트를 읽는 듯한 효과를 내고, 이는 순교자전이 ‘열녀전’과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 …… 순교자전의 서술자는 규범적이고 집단적인 시선 혹은 목소리가 아니라 등장인물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며 그에 공감하는 시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전과 구별되며, 그럼에도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서술된다는 점에서 1인칭의 자기 고백적 서술과 구별된다.” 김정경(2014), 앞의 글, 215~216쪽.

〈표〉 〈기해일기〉와 〈성년광익〉에 실린 동일 세례명 성인

성별	세례명	명/〈기해일기〉	편 ⁵⁹⁾ /〈성년광익〉 (월/일)
남성	1 라우렌시오	1 범 라우렌시오	1 성 라우렌시오 유스티니아노 주교(9/5)
	2 베드로	6 나 베드로 권 베드로 최 베드로 홍 베드로 이 베드로 유 베드로	12 성 세바스테아의 베드로 주교(1/9) 성 베드로 사도 안티오키아 주교 착좌(2/22) 성 베드로 다미아노 주교 성사(2/23) 성 베드로 치명(4/29) 성 베드로 첼레스티노 5세 교황(5/19) 성 베드로 치명(6/2) 성 베드로 사도(6/29) 성 베드로 사도의 쇠사슬(8/1) 성 알칸타라의 베드로 성 프란치스코회 현수(10/19) 성 베드로 파스카시오 주교 치명(10/23) 성 베드로 주교 치명(11/26)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 주교(12/4)
	3 야고보	1 정 야고보	3 성 야고보 사도(5/1) 성 야고보 사도(7/25) 성 야고보 치명(11/20)
	4 요한	3 이 요한 박 요한 이 사도 요한	11 천주의 성 요한 현수(3/8) 성 요한 주교(5/13)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12/27) 성 요한 사도-기름 가마에 던져짐(5/6) 성 요한 프란치스코 레지스 현수(6/16) 성 세례자 요한 탄생(6/24) 성 요한과 성 바오로 형제 치명(6/26) 성 요한 팔베르투스 현수(7/12) 성 세례자 요한 치명(8/29) 성 요한 칸시오 신부(10/20) 성 요한 교수(11/24)
	5 바울로	4 정 바울로 홍 바울로 홍 바울로 허 바울로	5 성 바오로 은수(1/15) 성 바오로 사도 회심(1/25) 성 바오로 주교(3/24) 성 요한과 성 바오로 형제 치명(6/26) 성 바오로 사도(6/30)
	6 가롤로	1 조 가롤로	1 성 가롤로 주교(11/4)
	7 이나시오	1 김 이나시오	1 성 이나시오 주교(2/1)
	9 요셉	1 장 용셉	2 성 요셉 동정 마리아의 배필(3/19) 성 갈라상스의 요셉 현수(8/27)
	10 프란치스코	1 최 프란치스코	5 성 바울라의 프란치스코 교수(4/2)

				성 프란치스코 카라홀로 현수(6/4) 성 프란치스코 오상(9/17) 성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고수(10/4) 성 프란치스코 보르자 정수(10/10)
	11	필립보	1 최 필립보	4 성 필립보 사도(5/1) 성 필립보 부제(6/5) 성 필립보 베니시오 현수(8/23) 성 프란치스코 오상(9/17)
	12	안드레아	2 정 안드레아 손 안드레아	3 성 안드레아 코르시노 주교(2/4) 성 안드레아 아벨리노 현수(11/10) 성 안드레아 사도(11/30)
	13	스테파노	1 민 스테파노	4 성 스테파노 교황 치명(8/2) 스테파노 성인의 무덤을 찾음(8/3) 성 스테파노 국왕(9/2) 성 스테파노 수선치명(12/26)
여성	1	아가타	10 이 아가타 이 아가타 김 아가타 전 아가타 권 아가타 이 아가타 이 아가타 권 아가타 정 아가타 이 아가타	1 성녀 아가타 동정 치명(2/5)
	2	막달레나	10 김 막달레나 이 막달레나 허 막달레나 허 막달레나 박 막달레나 한 막달레나 이 막달레나 손 막달레나 조 막달레나 이 막달레나	2 성녀 핏지의 마리아 막달레나 동정(5/27) 성부 마리아 막달레나(7/22)
	3	안나	3 박 안나 김 안나 한 안나	1 성부 안나 동정 마리아의 어머니(7/26)
	4	루치아	3 박 루치아 김 루치아	1 성녀 루치아 동정 치명(12/13)

			루치아		
5	테레사	3	이 테레사 김 테레사 김테레사	1	성녀 테레사 동정(10/15)
6	아네스	2	김 아네스 김 아네스	1	성녀 아네스 동정 치명(1/21)
7	콜롬바	1	김 콜롬바	1	성녀 콜롬바 동정 치명(12/30)
8	베네딕따	1	현 베네딕따	1	성녀 베네딕따 동정 치명(10/12)
9	엘리사벳	1	정 엘리사벳	3	성모 엘리사벳 찾아가심(7/2) 성부 엘리사벳 국후(7/8) 성부 엘리사벳 국후(11/19)
10	가타리나	1	이 가타리나	3	성녀 카타리나 동정(3/11) 성녀 시에나의 카타리나 동정(4/30) 성녀 가타리나 동정 치명(11/25)
11	체칠리아	1	유 체칠리아	1	성녀 체칠리아 치명(11/22)

59) <기해일기>는 순교자의 수를 표시하였고, <성년광의>은 성인전의 편수를 표시하였다. <성년광의>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야기마다 소재목이 있으며, 때로 한 명의 성인이 두세 편의 이야기로 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현석문, 『기해일기』, 하성래 감수, 성·황석두루가서원, 1986, 1~177쪽.
 『성년광익』 1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1~518쪽.
 『성년광익』 2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531~1078쪽.
 『성년광익』 3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1~467쪽.
 『성년광익』 4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527~1032쪽.

2. 논저

- 강우성, 「설교, 자서전, 에세이: 미국 개인주의 담론의 기원」, 『미국학 논집』 42집2호, 2010, 1107~138쪽.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 연구」, 『정신문화연구』 40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223~252쪽.
 김정경, 『조선후기 여성한글 산문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6, 1~342쪽.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여신도의 주체화 방식과 생애 기술 방식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33~62쪽.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죽음의 의미와 방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131~156쪽.
 김윤성, 「초기 한국 가톨릭 성인 전기의 서지: 한문 서학서의 전래와 번역」, 『교회와 역사』 302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51~81쪽.
 윤인선, 「〈기해일기〉에 나타난 순교 경험의 서사화 양상」, 『기호학 연구』 38, 한국기호학회, 2013, 183~212쪽.
 이유진, 「한국 천주교 순교자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26, 한국구비문학회, 2008, 249~290쪽.
 방상근, 「《성년광익》의 서지 연구」, 『聖年廣益』,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6~14쪽.
 방상근, 최선훈, 양인성, 『한국천주교회사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1~309쪽.
 방상근, 「18세기 말 조선 천주교회의 발전과 세례명」, 『교회사연구』 34,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63~88쪽.
 조광 역주, 『(역주)사학정의』,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4, 1~344쪽.
 도키 겐지 외 지음, 오근영 역, 『성서 문학과 영웅 서사시』, 웅진 지식하우스, 2009,

1~184쪽.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상, 안응렬·최우석 역주, 한국교회사 연구소, 1980,

1~803쪽.

슬라보예지체,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인간사랑, 2002, 1~549쪽.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Gihaeilgi* and *Seongnyeongwangik*

Kim, Jeong-gyeo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changes in the way of understanding the life of a person which was happened after introducing Catholicism.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compared *Gihaeilgi* and *Seongnyeongwangik*. *Seongnyeongwangik* is a hagiology whi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was read a lot by the Chosun Catholics. *Gihaeilgi* is biographies of Chosun Catholics who was martyred in Gihaebakhae. I found out that *Seongnyeongwangik* focused on the manifestation of God's will and miracle and *Gihaeilgi* focused on the personal courage and patience.

This article explains these differences as a difference in the way each texts understand Jesus' life. The miracle story, *Seongnyeongwangik* understand that the life of an saint is similar to the life of Jesus, who is chosen as the Son of God and proves God's presence. The patience story, *Gihaeilgi* understand that the life of a martyr is similar to the life of Jesus, who is willing to be the Son of God. In conclusion, I have seen in this article that reading a miracle story as a story of patience is related to a change in the way that identity is composed, the change from duty to will.

Key Words *Gihaeilgi*, *Seongnyeongwangik*, Catholicism, saint, martyr, hagiology

논문투고일 : 2017.10.15

심사완료일 : 2017.11.09

게재확정일 : 2017.11.15